



2019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사우디우쓰마니아 에탄회수처리시설 공사 현장 전경.

Hyundai E&C is passionate about building its "legacy of construction in the Middle East" once again, like the sun rising through darkness. Hyundai E&C is recently working on conducting a 746-million-dollar plant project in Saudi Arabia, the world's biggest oil and oil-related products exporter. The Uthmaniyah ethane recovery facility project is to build a gas treatment facility to recover ethane and fuel gas from 1.4 billion cubic feet of liquefied gas per day. The project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at the end of November this year. ▶ Continued on page 4, 5

어둠을 뚫고 일차기 떠오르는 태양처럼 '제2의 중동 건설 신화'를 이루기 위한 현대건설의 열정이 뜨겁다. 현대건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와 가스 매장량을 자랑하는 사우디에서 7억4600만 달러(약 8400억원) 규모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우쓰마니아 에탄회수처리시설은 하루 14억 세제곱피트(ccf) 규모의 가스를 에탄과 연료가스로 회수하는 가스처리시설로, 올 11월 말 준공 예정이다. ▶ 관련기사 4, 5면

Hyundai E&C wins this year's first redevelopment project

Hyundai E&C has obtained this year's first deal to redevelop the Juam Janggun Village in Gwacheon, Gyeonggi-do. Korea's primary builder has been selected as a constructor for the Juam Janggun Village redevelopment project with a majority of votes from members of the redevelopment association on January 20. The redevelopment project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nine apartment buildings of 32 floors above ground and three basement levels with 965 units in Juam-dong 63-9, Gwacheon-si, Gyeonggi-do. The construction cost is valued at about 275.9 billion won. THE H, the premium apartment brand of the builder, will be applied for the project.

The redevelopment area boasts of having an easy access to Yangjae-dong in Seoul. It is located only 15 minutes away from the Yangjae Citizen's Forest Station on foot, and is highly accessible to the Yangjae IC of the Gyeongbu Expressway, and the Bundang-Naegok Urban Expressway. In addition, residents are expected to enjoy shopping malls and natural environments including the Yangjae Stream and the Yangjae Citizen's Forest.



현대건설, 2759억원 규모 ... '과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수주

지하 3층~지상 32개 층 9개 동 965가구 신축 계획

현대건설이 과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따내며 새해 첫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건설은 1월 20일 과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얻으며 시공사로 낙점됐다. 과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3-9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2층 9개 동 규모의 아파트 965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는 2759억원이다. 단지는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가 적용된다.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은 행정구역으로는 과천시에 포함돼 있지만 사실상 서울 양재동 생활권에 속해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지하철 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고, 경부고속도로 양재C, 분당-내곡 간 고속화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반경 1km 이내에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양재점, 양재천, 양재시민의 숲 등이 위치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메이저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던 과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사업을 조합원들의 독보적인 지지를 받으며 수주했다"며 "중강남권"으로 통하는 과천에 처음 들어서는 디에이치 브랜드인 만큼 현대건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적용해 명품 단지로 완성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Vice Chairman Chung meets Next Leader Board as part of frank communication management



Vice Chairman Chung Jin-haeng led a meeting with about 20 members of the Next Leader Board (NLB) in a cafe near the head office on January 11 to greet the New Year.

The on-the-spot Q&A session served as a venue to break a hierarchical wall and build a strong sense

of belonging and bonding among employees. Chung's move to hold the NLB meeting is considered as part of his vision to establish a corporate culture for open communication which he stressed in the kick-off meeting earlier this month.

"The New Year general meeting with

a group of former executives and CEOs of Hyundai E&C made me reaffirm that our history is in line with the legacy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aid Vice Chairman Chung. "The young generation may regard Hyundai Spirit as what belongs only to seniors, but this is a high time for us to exploit 'DNA' of

Hyundai E&C."

He called on the participants to keep the positive Hyundai Spirit in mind in order to reclaim no. 1 position in the construction market, saying anecdotes of late honorary Chairman Chung Ju-yung who successfully completed seemingly impossible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the Jubail Industrial Port and Hyundai Mipo Dockyard.

Founded in 1990, the NLB is an employee-led organization which plays a prominent role in promoting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top management and employees and bringing new wind to the organization.

정진행부회장, 차세대 리더보드 간담회... '소통 경영' 박차

1월 11일, 격의없는 소통 시간 가져... "건설명가 재건 위해 현대건설의 DNA를 발휘해야 할 때"

우리 회사 정진행 부회장이 지난 1월 11일 서울 계동 본사 인근 카페에서 차세대 리더보드 20여 명과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즉석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상하 간의 벽을 허물고 소속감과 유대감을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자리였다. 정 부회장의 이러한 행보는 올 초 시무식사에서 강조한 '열린 소통 문화 확립'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 부회장은 차세대 리더보드에게 "최근 현대건설의 원로 모임인 '건우회' 신년총회에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대건설의 역사가 곧 우리나라 경제의 발자취였음을 다시 한번 확

인할 수 있었다"며 운을 뗀 후 "젊은 세대에게는 '현대정신'이 옛 선배들의 전유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지금이야말로 현대건설의 DNA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던 주베일 산업항, 세계 최대 미포만 조선소 등을 성공적으로 이끈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일화들을 소개하며 "올해 우리 회사의 당면 과제인 '건설명가 재건' '수주 1위 탈환'을 위해 명예회장님이 남긴 긍정의 '현대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정 부회장은 또 대학 시절 해외 현장에 서 근무하고 싶어 현대건설에 입사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첫 해외 근무지인 사우디 알코바로 떠나기 위해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을 당시 설레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귀해 해외 근무가 회사의 발전은 물론 개인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인 정 부회장은 "그 시대는 모든 것이 아날로그로 이뤄지다 보니 회사가 시골벽적인 분위기였다. 이른 새벽에 출근해 텔레스 당번을 서고 주요 사항들은 큰 종이(全紙)에 직접 굵은 펜으로 적어 보고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 부회장은 직원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취미·일상 등에 대한 답변도 진솔하게 풀어내었다. 건강관리 비결에 대해서는 "사회 초년병 시절 현대건설에서 근무하며 얻은 좋은 습관이 있다"며 "남들보다 이른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 눈곱만 떼고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하는 게 평생 습관으로 남아 지금도 또래보다 어려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웃음 지었다.

사전 각본 없이 이뤄진 이날 간담회는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 함께 한 김충기 차세대 리더보드 의장은 "부회장님을 처음 보았을

때 '차도남' 같은 이미지 때문에 다가가기 어려웠는데 소탈한 모습에 더욱 친밀해진 느낌"이라며 "편안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값진 조언들이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1990년 처음 도입된 차세대 리더 보드는 경영층과 직원들 간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직원 대표기구다. 이번 24기 차세대 리더 보드는 2017년 인도네시아 현장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우수기업문화 사례조사 및 제도 제안, 미래사업 아이템 발굴 T/F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Business Management Policy 2019

Great Company

Maximization of Added Value for All Stakeholders

Great People

- Self-determination
- Executive ability
- Proactive ability

Great Culture

- Tolerance for failures
- Removal of the tragedy of the commons
- Prompt decision-making

Great Value

- Compliant management
- Transparent management
- Added value management

제24차 현대건우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개최

1월 10일, 이춘림 회장 등 550여 명 참석



우리 회사 전직 임직원 모임인 현대건우회가 1월 10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제24차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제24차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에는 이춘림·곽삼영·지주현·연제원 회장을 비롯한 현대건우회 회원과 우리 회사 정진행 부회장 등 5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안승규 현대건우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안 회장은 “현대건우회가 지금까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원로 선배님들의 크나큰 애정과 역대 회장단의 노력,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 가능했다”며 “올해도 역동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건우회 회원 모두가 힘을 합쳐 현대건설의 주요 영업 활동을 곁에서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춘림 고문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현대건설에서 고락을 함께한 동지이자 친구들”이라고 운을 댔

후 “국내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현대건설 임직원의 강력한 의지와 진취적인 행동에 큰 성원을 보낸다”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취임한 정진행 부회장은 이날 행사를 통해 현대건우회 원로들에게 첫 인사를 했다. 정 부회장은 “올해를 현대건설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원년으로 삼고 임직원이 하나 되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선배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답했다.

또한 정기총회를 겸한 이번 신년교례회에서는 2018년 결산 및 감사 보고, 2019년 예산안 심의 등도 함께 결정했다. ‘건우회’는 1996년 6월 창립한 우리 회사 퇴직 임직원들의 친목단체로,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OB모임으로 꼽힌다. 1500여 명의 회원 대부분이 1960년대부터 국내외에서 활동한 건설업계 원로다.

MINI INTERVIEW

“진정한 나눔은 따뜻한 말 한마디”

아산사회복지재단에 1억원 기부한 윤영준 주택사업본부장

신년 초 회사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우리 회사 직원이 아산사회복지재단 쪽에 개인 기부 금액으로는 상당히 큰 1억 원을 기부했다는 것.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연의 주인공은 우리 회사 주택사업본부의 수장인 윤영준 전무.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던 그를 어렵사리 <사보신문>에서 만났다.

1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기부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선천계서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거나 학교나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유지(遺志)를 남기셨다. 그분의 뜻에 따라 노숙자나 저소득층 학생들을 돌보는 것을 흥내라도 내왔는데, 불우 환자를 위한 나눔은 늘 부족하다고 느껴왔다.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2~3년 정도 저축을 했다.

기부를 결정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지난 크리스마스이브에 아내와 함께 아산사회복지재단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베푸는 삶에 대해 아내와는 서로 공감하는 바가 크다. 기부를 결정했을 때 가족들도 적극 동참해 줬다.

아산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 특별한 이유는.

1987년에 입사한 현대건설은 내 인생의 전부다. 부족한 나를 키워주고 성장시켜 준 고마운 조직이다. 육사에 있을 때 정주영 명예회장의 강연을 우연히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부국강병(富國強兵)’의 기업 철학에 반해 현대건설에 입사했다. 정 명예회장은 돈을 벌기보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우리 주변의 이웃을 먼저 생각하셨다. 그런 훌륭한 창업주가 일찌감치 좋은 뜻으로 세워 놓은 훌륭한 재단이 바로 아산사회복지재단이다. 망설임 이유가 없었다.



평소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지 모르는 직원들에게 한마디.

불경에 무재칠시(無財七施)라는 말이 있다. 재물이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일곱 가지의 큰 보시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변 사람에게 마음만 기울여 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베푸는 일이다. 꼭 재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온색한 재벌보다 너그럽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이 베풀고 살 수 있다. 나누면서 더불어 살려는 마음이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 싶다.

The second HTEI & Hyundai E&C Subcontractors Job Fair held

Hyundai E&C takes the lead in creating jobs for youth

Our company successfully completed the Hyundai Technical Education Institute (HTEI) & Hyundai E&C Subcontractors Job Fair,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Our company provided its first job fair in last August in a bid to seek win-win cooperation with its subcontractors and provide an opportunity for young job seekers to get employed. The job fair held in the HTEI on January 10 was participated by about 170 trainees and 20 subcontractors from the fields of civil engineering, architecture and plant construction. Notably, the number of the participants increased two-fol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which proved its popularity



among young job seekers.

The Hyundai Technical Education Institute has trained approximately 36,000 skilled professionals based on its knowhow on the operation of construction-related vocational programs.

제2회 ‘현대건설 기술교육원-협력사 채용박람회’ 개최

1월 10일 대림동 기술교육원 ...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우리 회사가 업계 최초로 시행 중인 ‘현대건설 기술교육원-협력사 채용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현대건설 기술교육원-협력사 채용박람회’는 협력사와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처음 도입됐다. 지난 1월 10일 대림동 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기술교육원 교육원생 170여 명과 토목·건축·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 20여 곳이 참여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는 인력 공급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고, 교육원

생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참가자가 두 배 가까이 늘어 채용박람회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행사에 참여한 관악산업 김강운 이사는 “지난해 채용박람회를 통해 좋은 인재를 많이 채용했다”며 “검증된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을 인터뷰해 직접 채용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은 1977년 개원한 이래 건설기술교육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3만6000여 명의 인력을 배출해 온 국내 건설업계 유일의 건설 전문 인력 양성기관이다.

건설업계 최초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 하이오스(HIoS) 구축

우리 회사가 건설업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 중이다.

하이오스(HIoS) 안전관리 시스템은 각종 센서를 통해 축적된 정보를 BLE 통신(저전력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스캐너로 전송한다. 스캐너에서 수집된 센서 정보는 다시 통합 플랫폼으로 보내 위험 여부를 판단한다. 이 시스템은 현장 직원 및 근로자에게 경보 알람을 울려 잠재적인 위험 요인 제거에 효과적이다. 이 외에도 가스농도, 풍속 등 계측 센서의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하이오스는 추가로 개발되는 단위 기술을 플랫폼과 연동하는 등 각 현장 요건 사항에 맞춰 최적화된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다.



▶근로자 위치 확인 ▶장비협착방비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등 6종 기술이 내재돼 있다.

하이오스는 현재 테헤란로 237 개발사업 현장에 적용 중이다. 향후 터널 및 건축현장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EU 게이트웨이 비즈니스 사절단, R&D센터 방문

‘EU 게이트웨이 그린에너지 기술전시상담회’에 참여한 비즈니스 사절단이 1월 21일 우리 회사 R&D 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행사는 ▶EU 게이트웨이 소개 ▶현대건설 R&D 센터 소개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현황 소개 ▶그린스마트이노베이션센터(GSIC) 투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유럽의 24개사, 34명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한국과 EU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협력 프로그램인 ‘EU 게이트웨이’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최신 기술 동



향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기술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 사절단과 친목을 다질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사우디 우쓰마니아 에탄회수처리시설 공사 현장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Riyadh)에서 동쪽으로 약 3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우쓰마니아(Uthmaniyah). 이 지역에서 40여 년간 운영돼 온 '가스 플랜트(Uthmaniyah Gas Plant)' 시설 옆으로 우리 회사가 수행 중인 '에탄회수처리시설 공사' 현장이 위용을 자랑한다. 2016년 10월 27일 착공한 현장은 공정을 89%로 현재 순항 중이다. 글=박현의 / 사진=김이규



1 사우디 우쓰마니아 에탄회수처리시설 공사 현장 전경 2 현장의 주요 기기 중 하나인 팽창기 가스 분리기(Expander Feed Separator)가 설치된 모습. 3 기존 공장 내에 설치된 파이프랙(Pipe Rack) 시설물. 4 두 대의 크레인을 이용한 탠덤 리프팅 방식으로 에탄회수처리시설의 핵심 장비인 디메타나이저를 설치하고 있다. 5 공역식 열교환기(Air Fin Cooler) 시공 모습.



Hyundai E&C lets its legacy of construction in Middle East continue



Hyundai E&C received a contract valued at 746 million dollars, or approximately 840 billion won, from Saudi Aramco to build an ethane deep recovery facility (EDRF). To win the mega-sized project, the builder entered a fierce competition with global leading construction companies such as UK's Petrofac and Spain's Tecnicas Reunidas. Korea's primary builder obtained the EDRF project on the turn-key basis on October 27, 2016, which was attributed to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Karan gas treatment plant project in 2012 and the Khurais gas treatment plant project in 2009 in Saudi Arabia. The construction is slated to be finished at the end of November this year, and 89 percent of the project has been completed as of now.

The EDRF project is aimed to construct a facility in which a demethanizer is employed to separate natural gas liquids including ethane and propane from 1.4 billion cubic feet of liquefied gas produced in the Uthmaniyah region for a day. The project is considered as an extension of the Uthmaniyah Gas Plant which has operated in the area for over four decades.

Most proudly, the construction site installed the demethanizer in only four hours. In order to install the 820-ton, 75-meter column, the workers undertook tandem lifting by using two cranes. After examining the construction process, manager of the client's gas management sector was so impressed that he sent a letter to plant manager of the Uthmaniyah Gas Plant and PMT (Project Manger Team) that read: "I have watched many gas plant projects, but this is the first time for me to see such a challenging construction work was completed at a stroke."

The employees working at the construction site also feel proud of using ConXtech. The first of its kind among the construction projects conducted by Saudi Aramco drew huge attention from the client. ConXtech employs automated manufacturing technologies to deliver modular and typically brace-free structures. ConXtech guarantees a high construction productivity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steel-related methods by offering steel-frame building designs using the minimized amount of construction materials.

The EDRF project contributes to raising status of Hyundai E&C in one of the richest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by overcoming a lot of obstacles. It is expected that the EDRF construction site lays the solid foundation for the builder to win additional lucrative projects in the country.



Technology
중동 플랜트 프로젝트 최초의 콘엑스텍 공법 적용 성공
Successfully perform ConXtech, the first of its kind among plant projects in the Middle East region

Ownership
최고의 품질-무사고-작기 준공(Mechanical Completion) 달성을 통한 추가 주문 기반 확보
Lay the foundation for winning additional contracts in Saudi Arabia by achieving quality, no accidents and mechanical completion

Pride
무재해 570만 시간 달성, 중공까지 1000만 시간 목표
Achieve 5.7 million hours without accidents, and target 10 million hours without accidents until project completion

사우디도 인정한 현대건설 ... 중동 건설 신화의 맥(脈)을 잇다

올 초 사우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원유 확정 매장량은 2685억 배럴(2017년 말 기준), 천연가스 확정 매장량도 325조1000억 세제곱피트(표준 압력 온도 STP 기준)로 추산된다. 이를 총괄하는 곳은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사우디아라뮴코(Saudi Aramco).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성공(공사 전적에 따른 공사비)을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발주처 중 하나다.

사우디아라뮴코가 발주한 우쓰마니아 에탄회수처리시설 공사(Ethane Deep Recovery Facility, 이하 'EDRF 공사')는 7억4600만 달러(약 8400억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로 수주 당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우리 회사는 영국 페트로파(Petrofac), 스페인 테크니카스 리우니다스(Tecnicas Reunidas) 등 글로벌 유수 업체들과의 경쟁 끝에 2016년 10월 27일 탄기로 수주해 냈다. 최저 입찰 금액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다. 그동안 사우디에서 카란 가스처리시설 공사(2012년 완공), 쿠라이스 가스처리시설 공사(2009년 완공) 등의 공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결과였다.

까다로운 요구사항, 철저이 분석하며 대응

EDRF 공사는 에탄회수처리시설의 핵심 장비인 디메타나이저(Demethanizer)를 활용해 우쓰마니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하루 14억 세제곱피트(cf)의 가스를 에탄-프로판 등 천연가스액으로 분리하는 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현장은 이 지역에서 40여 년간 운영돼 온 우쓰마니아 가스 플랜트(Uthmaniyah Gas Plant, 이하 '기존 공장') 공장의 확장 개념이다. 우리 회사는 에탄회수처리시설 1기, 천연가스액(NGL) 저장 탱크 2기, 스타터빈 발전기 1기, 기타 부대시설 공사와 기존 공장 내부를 개보수하는 일까지 맡았다.

공사 초기 기존 공장 내에 위치한 현장 부지는 별도의 펜스로 막혀 있었다. 펜스는 테러, 보안 등의 이유로 발주처가 아닌 사우디 정부에서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었고, 공사 착수를 위한 게이트를 승인받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기존 공장에서 공사 부지를 인도받을 때도 어려움이 따랐다. 현장 총괄은 발주처가 조직한 'PMT(Project Management Team)'였다. 기존 공장에서 PMT가 제시한 규정 외에 추가적인 사항들을 요구했다. 결국 우리 회사는 계획보다 2개월이나 늦게 공사 부지를 인도받았다. 현장은 두 개의 발주

처가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요구사항들을 철저히 분석해 대응했다. 수많은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했으며, 주말 및 야간 작업까지 감행하며 공기를 맞추고 있다.

EDRF 공사 현장은 ▶2017년 10월 토크 파이프랙(Pipe Rack) 기초공사 ▶2018년 3월 철골 설치 ▶5월 지사배관 설치 ▶7월 전기 케이블 트레이 설치 ▶12월 디메타나이저 현장 도착 및 설치의 과정을 거쳐 올 4월 전원 가압(Energization)을 위한 전기 작업과 기계-배관 및 계장 케이블 작업에 한창이다. 공정률은 89%(시공 공정률 68.52%)로 올 11월 말 준공 예정이다.

발주처에서도 인정한 현대의 기술력

현장에서 자부심을 갖는 일 중 하나는 디메타나이저를 4시간 만에 설치한 것이다. 현장은 두 대의 크레인을 이용한 탠덤 리프팅(Tandem Lifting) 방식으로 무게 820t, 높이 75m에 달하는 거대한 기둥 형태의 기기를 한 번에 설치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본 발주처의 가스 운영 부문장인 '여러 가스 플랜트 공사를 지켜봐왔지만 이처럼 어려운 시공을 수행 작업 없이 단번에 끝낸 것은 처음이다. 현대건설이 참 대단하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기존 공장 공장장과 PMT에 보냈을 정도다.

철골 공사 일부에 콘엑스텍(ConXtech) 공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실도 자랑거리다. 발주처가 7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콘엑스텍사의 건설 기술 콘엑스텍은 철골 구조물을 모듈화해 조립하는 공법이다. 자재를 최소화한 설계로 기존 공법에 비해 시공 생산성이 높다. EDRF 공사는 사우디아라뮴코 공사에서 공법이 처음 시도된 프로젝트라 발주처의 관심이 특히 높았다. 현장 관계자는 "콘엑스텍 공법으로 작업 시간과 인가를 상당 부분 절감했다"면서 "사우디아라뮴코도 이를 매우 흡족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술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대건설의 위상을 올리고 있는 EDRF 프로젝트. 현장 직원들은 "발주처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공사 수행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라는 각오로 적기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발방울을 흘리고 있다. 570만 시간 무재해는 물론, 기술력까지 인정받고 있는 EDRF 공사 현장은 사우디에서 발주한 양질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든든한 반석으로 자리할 것이다.

Interview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No.1 리더

현장소장 **전재호 상무**

29년의 회사 생활 중 플랜트 공사 경력만 17년이 넘는 플랜트 공사 베테랑 전재호 현장소장. 그는 "현장의 성공 여부가 향후 사우디아라뮴코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를 결정한다"는 말을 가슴에 품고 현장을 진두지휘한다. 전 소장의 철저한 관리 덕분에 현장은 무재해 570만 시간을 달성했으며, 준공까지 1000만 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유가 여파로 플랜트 건설시장이 불황인 상황에서 EDRF 공사 수주는 가문의 단비와 같습니다. 현장소장으로서는 제 역할은 발주처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최고의 품질로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 일인데, 우리 현장이 사우디아라뮴코 공사 수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살림은 내게 맡겨라

관리팀장 **최영창 부장**

관리 파트는 흔히 '현장의 살림꾼'으로 비유된다. 현장의 수입(매출)과 지출(원가)을 꼼꼼하게 따지고 직원들의 의식주를 관리하는 등 현장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기 때문. 최영창 관리팀장은 운영 전반과 예산 관리, 3700여 명의 직원 근로자 관리를 총괄하며 현장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



"관리 파트의 업무 중 하나는 직원들의 필요를 살피는 일입니다. 근무 환경이 편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부임 후 처음 한 일은 어두웠던 현장 사무실의 조도를 밝히기 위한 조명 교체였습니다. 환해진 사무실만큼이나 직원들의 표정도 좋아서 참 뿌듯했던 기억이 나네요. 앞으로도 섬세하고 알뜰하게 현장을 관리하겠습니다"

남다른 집중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공무팀장 **박석렬 부장**

카란 가스처리시설 공사 현장에 이어 두 번째 사우디 근무하는 박석렬 공무팀장. 그는 승인 절차가 복잡하기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뮴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품질, 시공, 자재, 구매 등 모든 공역에서 남다른 집중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과 발주처와의 돈독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현장 직원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는 우리 현장의 준공이 예정돼 있고 사우디아라뮴코에 많은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들겠지만, 중요한 해안만큼 불굴의 의지로 공사를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우쓰마니아 에탄회수처리시설 공사 현장 파이팅!"

27년 경력의 품질 전문가

품질팀장 **정의용 부장**

발주처 품질조직(PID)은 현장의 공정 계획이 바뀔 때마다 품질지적서(Job Not Ready)를 발행했다. 이는 곧 품질평가자(PQI) 감점으로 이어졌다. 품질 경력만 27년인 정의용 품질팀장은 발주처 PQI 담당자를 만나 우리 회사 품질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품질 개선 실적 등을 설명하며 감점 요인을 상세히 설명하고 감점 요인을 부각했다. 그 덕분에 현장은 발주처 프로젝트 총 최고점인 95점(100점 만점)을 기록할 수 있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뮴코 공사에서 품질관리자로 일한 사람이라면 전 세계 어느 현장에 부임해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품질 달성을 위해 팀원들과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장 직원 여러분도 좀 더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9 신입사원 현대건설을 빛낼 슈퍼루키들이 등장했다. 짧지만 알찼던 2주간의 입사 교육을 받으며 현대건설인이 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한 2019년 신입사원들. 열정과 패기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신입들의 열정을 느껴보자. 글·정리=강은비 / 사진=이슬기

슈퍼루키들의 출구 없는 매력에 빠져보세요!

공동육사원 • 현대건설은 저에게 '평생의 반려자'입니다. 즐겁고 어려운 일을 함께하며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반려자처럼 현대건설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정년퇴직할 때까지 현대건설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가다 보면 회사의 미래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중역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웃음)? • 부모님의 선물을 직접 골라본 적이 없는데,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사드리려고 합니다. 받고 기뻐하실 부분의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요.

김경태 사원 • 대학원에서 연구했던 분야를 업무로 계속 할 수 있게 해준 현대건설은 '기회'입니다. 현대건설이 제게 준 가능성을 헛되이 날리지 않기 위해 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나겠습니다. • 건설 자동화 기술을 현장에 도입이 되도록 구현해 R&D의 중요성과 기술 혁신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 첫 월급으로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주식 계좌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세계 경제 흐름을 파악하면 현대건설에 필요한 기술과 미래



사업 영역도 가능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두연 사원 • 저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현대건설은 '감사할'입니다. 입사통지서를 받았을 때 가족 모두가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순간이 생생합니다.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현대건설은 저에게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입니다. •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거듭나고, 송·변전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커리어를 꾸준히 쌓아나가겠습니다. • 첫 월급의 기쁨은 가족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힘들 때 옆에서 도움을 준 친구들에게도 맛있는 저녁을 사려고요.

김소희 사원 • 늦깎이 신입으로 입사한 현대건설은 저에게 '또 다른 시작'입니다. 레스토랑 창업, 디지털 광고 기획, 데이터 분석까지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현대건설 R&D센터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컨설팅 회사와는 다르게 건설업에서는 어떤 대상과 자료를 분석할지 너무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현대건설의 데이터 전문 분석가로 성장하겠습니다. • 월급은 계획을 세워 쓸 예정입니다. 얼마 용돈도 드리고 미래를 위해 다달이 100만원씩 모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힘이 되어준 남자친구와 멋진 데이트도 할 예정입니다.

김영빈 사원 • 저에게 현대건설은 '새하얀 캔버스'입니다. 아직은 비어있는 캔버스이지만 현대건설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경험이 저만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현대건설의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넓은 세계 시장에서 탄탄히 쌓아 올린 관계를 활용해 저 역시 현대건설 Top-tier Director가 되고 싶습니다. • 그동안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께 용돈과 식사를 대접하려 합니다. 막내 동생에게 용돈도 쟁겨 줘서 자랑스러운 오빠가 될 거예요(웃음).

김승환 사원 • 현대건설은 '잘 깨운 첫 단추'입니다. 좋은 업무 환경과 분위기, 좋은 선배님들까지 현대건설의 첫인상이 매우 좋았습니다. 사회에서 첫 시작을 현대건설로 잘 깨웠으니 끝까지 단

추를 잘 채우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 업무가 처음이라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당백' 사원으로 거듭나 선배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 월급 관리도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내 경제·금융 수업을 들으면서 활발하게 테크닉을 해볼까 합니다.

박재정 사원 • 저에게 있어 현대건설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디딘 지금이 인생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하며 스스로 정한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 현장 근무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고 저의 손길이 닿아 완공되는 건축물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싶습니다. • 부모님과 할머니께 의미 있는 선물을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셀프 입사 축하 선물로 눈여겨 본 코트를 구매할까 고민 중입니다.

백세일 사원 • 현대건설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준 '터닝 포인트'입니다. 입사 전까지는 전공 공부 및 자격증을 취득하며 인생의 기초를 다졌지만, 이제는 커리어를 쌓아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전기 공종뿐 아니라 각종 공종을 이해하고 협업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이 저를 글로벌 랜드마크 시공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 가장 먼저 부모님 여행부터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직접 고른 지갑도 선물하려고요.

손태희 사원 • 저의 '제2의 인생'은 현대건설에서 막 시작했습니다. 가장 입사하고 싶었던 현대건설의 입사통지서를 받았던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설레입니다. • 매일 배우고 성장하며 사람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다블로퍼가 되는 것이 제 최종 목표입니다. 빨리 현대건설 DNA를 체득해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 첫 월급은 그동안 받은 부모님의 사랑에 작거나 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용돈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광영 사원 • 현대건설 입사 합격 문자를 받았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다른 회사도 불은 상태였지만 의심의 여지없이 이곳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건설이 저에게 '자부심'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 제 분야에 서만큼은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유광영' 하면 수행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떠오를 만큼 실력을 키우겠습니다. • 드디어 용돈 받는 아들이자 벗어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첫 월급은 돈으로 찾아뵙을 만들어서 설날에 드리려 합니다.

윤승욱 사원 •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드림카가 있고 한번은 꼭 타겠다는 꿈을 품습니다. 토목공학인으로서 늘 현대건설 입사를 꿈꿔온 저에게 이 회사는 '드림카'입니다. 현대건설 드림카에 탑승했으니 주인공 의식을 갖고 우리 회사가 발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 업무에 있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직접 공사를 하며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월급은 저를 기우시라고 고생하신 할머니와 부모님께 감사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곁에서 힘이 되어준 여자친구에게도 깜짝 선물을 준비하려고요.

이기린 사원 • 무엇이든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현대건설은 저에게 '시작점'입니다. 사회생활의 첫 시작, 경제적 독립의 첫 시작, 미래를 위한 첫 시작 모두 현대건설에 입사하면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 첫 업무로 어떤 연구에 참여하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학교 연구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도 기대됩니다. • 직장이 되어 받을 첫 월급봉투는 부모님께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양희 사원 • 해외를 주무대로 일하고 싶었던 저에게 현대건설은 'Dreams Come True'입니다. 현대건설이 전 세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주목받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다해 맡은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입사 후 가장 기대되는 것도 대한민국 일등 건설사인 현대건설에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부분입니다. 꼭 현

장에 보탬이 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 첫 월급은 누구보다 현대건설 입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모님께 드려 더욱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습니다.

정원식 사원 • 저에게 현대건설은 '군대'입니다. 군 생활 당시 많이 힘들고 시련은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 가장 기억에 남고 추억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렇듯 현대건설은 저를 성장하게 만드는 발판이자 잊지 못할 추억을 줄 곳이라 믿고 있습니다. • 가장 기대되는 것은 첫 현장 부임 후 모든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느낄 기분입니다. 아직 같은 안 오지만 어떤 감정이 뒤섞일지 궁금합니다. • 첫 월급은 반차마자 바로 현금으로 받아서 두둑하게 봉투에 넣어 부모님께 드리려 합니다.

조진모 사원 • 고통학생 시절부터 시공 전문가의 꿈을 가져온 저에게 현대건설은 '목표 실현의 무대'입니다. 공터에서 건축물이 올라가고 주변 상권까지 변화되는 모습에 매료된 후부터 최고의 건설 회사인 현대건설 입사를 꿈꿔왔습니다. • 늦

자식에게 '아빠가 지었다'고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랜드마크 건물 시공을 맡고 싶습니다. • 첫 월급은 부모님께 용돈으로 100만 원 이상 드리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상 받기만 했는데 용돈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최시훈 사원 • 건축공학을 전공해 현대건설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명가에 입사하게 된 것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오랫동안 건설 엔지니어를 꿈꿔온 저에게 현대건설은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 국내 건설업계의 정상이 있는 현대건설의 조직원이 되어 최상의 기술을 지닌 선배님들께 직접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대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최고의 건설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을 모시고 소고기 를 먹으며 가려 합니다.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용돈도 드리려고요.

황규오 사원 • 직장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한 현대건설은 저에게 '페라리'입니다. 많은 사람의 드림카로 꼽히는 페라리처럼 현대건설

은 업계에서 최고의 회사이자 제가 유일하게 가고 싶었던 곳입니다. •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경험할 모든 일이 너무 기대됩니다. 신입사원이라 맡은 업무를 모두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빠르게 적응하고 배우면서 선배님들께 '열심히 한다' '잘한다'와 같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처음 받는 월급으로는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리고, 친한 지인들에게 저녁을 살까 합니다.

최호창 사원 • 현대건설은 저에게 '새로운 출발'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곳이 바로 '현대건설'이기 때문입니다. •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며 인생 처음으로 건설이라는 도메인을 접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할지 마음이 설렘니다. 현대건설인이 갖춰야 할 아이덴티티를 체내 화해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 첫 월급을 받으면 저만의 공간을 맡겨 꾸미고 싶습니다. 원하는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소품도 구매해 보거나 해외 편안한 힐링 공간으로 꾸미려 합니다.

설문으로 알아봤대 '뉴비' 가느긴 현대건설은?

의견의 스태트하며 저돌적인 성격을 가진 40대이재! 동물와 목표만을 바라보고 돌진하는 코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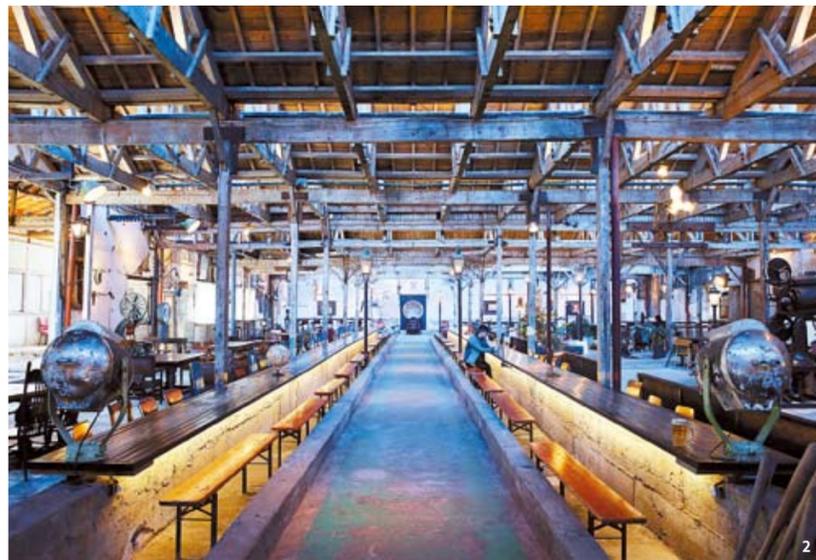
트렌드 따라잡기 호텔에서 인문학 강의를 듣고, 멈춰버린 공장의 기계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은행에서 술을 마시며 책을 읽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지만 '카멜레존'에서라면 가능하다.

최근의 유행 공간들은 자유자재로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공간을 참신하게 변화시켜 눈이 높아진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다.

글=김동호 자유기고가 / 사진=위키미디어,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석구석(<http://korean.visitkorea.or.kr>), 아난티, KEB하나은행 제공



©SisterLondon



2

1 팝업 스토어 형식의 레스토랑이 운영되는 영국 킹리코트. 2 옛 방직공장에 들어선 카페 '조양방직'. 3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혁신공간, 일본 쓰타야. 4 도서관을 들여 지역 명소로 거듭난 아난티 부산. 5 술을 마시며 책을 볼 수 있는 서점 '북바이북'과 KEB하나은행이 함께 들어섰다.

오프라인 공간의 진화, '카멜레존'

'카멜레존(Chamele-zone)'은 특정 공간의 용도를 변화시키거나 재생, 체험, 협업 등을 통해 본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기능을 넘어서 새롭고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공간으로 진화하는 트렌드를 말한다. 일단 짓고 나면 수십 년 동안 한자리에 있는 건축물은 그동안 고정불변한 개념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따라 건물의 아이덴티티가 유연하게 변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한 가지 용도로 설명하기 힘든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만능의 시대를 넘어 가상현실까지 코앞에 닥친 지금, 오프라인 공간은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다채로운 색깔을 드러낸다. 그 변화의 양상을 키워드로 짚어보자.

1 Pop-up Store 시시각각 공간이 변화한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프로젝트하다'는 시시각각 성격이 바뀐다.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한식당, 화~금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는 타이 가정식당이며 주말 오전에는 워크숍이 열리고 오후에는 또 다른 식당이 문을 연다. 성동구 성수동의 옷가게 '밀리언 아카이브'는 어떤가. 이곳은 일정 기간마다 한 가지 테마의 옷만 판매한다. 최근의 상업 공간들은 이토록 변화무쌍하다. 한 공간에서 특정 시간대에, 또는 비정기적으로 다른 물건을 판매하고 사라졌다 또 다시 생겨난다. 짧은 기간 일시적으로 운영되고 철거되는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여는 상점이 늘어나고 있다.

영국의 부동산 투자회사 샤프츠베리는 런던에만 100여 개의 매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수익률을 기록하는 건물은 카

나비 스트리트의 랜드마크 '킹리코트'다. 재미있는 것은 킹리코트의 레스토랑들이 모두 팝업 스토어로 운영된다는 사실이다. 이곳은 런던의 유명 셰프들이 새로운 메뉴를 선보일 때 시범적으로 영업을 하는 실험 무대로 많이 활용된다. 팝업 스토어의 등장과 성공은 현대 소비에서 참신한 공간 기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Newtro 도시와 공간을 재생하다

발전소를 개조해 만든 영국 런던의 갤러리 '테이트 모던'부터 1980년대 콘셉트의 카페가 밀집한 서울 을지로 인쇄소 골목까지. 트렌드를 넘어 건축의 한 분야로 자리 잡은 것이 New와 Retro의 합성어인 'Newtro', 바로 '공간 재생'이다. 용도를 다해 흠뻑처럼 버려졌던 공간들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의 '핫 플레이스'들은 전부 뉴트로 콘셉트라고 봐도 좋을 만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간 재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강화도의 조양방직, 부산의 F1963, 서울 마포의 문화비축기지, 을지로 인쇄골목의 카페 등 창고나 공장을 카페나 갤러리로 조성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와 같은 공간들은 기존 건물의 뼈대나 간판, 기계와 도구들도 그대로 유지해 건물의 역사를 온몸으로 드러낸다.

소설가 김영하는 "도시의 산업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생산 기능이 약화되고 교류의 기능도 도시에 남았다"며 뉴트로 현상을 소개했다. 공장이 사람들을 위한 창조적 문화 공간이나 소통을 위한 카페로 바뀌는 현상은 이러한 도시 기능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3 Boundaryless 다양한 체험으로 공간의 경계를 허물다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들은 온라인 솜이 줄 수 없는 그 무엇, 고객에게 '체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간을 바꾸고 있다. 삼성전자의 '메가 스토어', 시몬스의 '시몬스 테라스', 함부르크·밀라노·도쿄·베이징에 문을 연 메르세데스·벤츠의 '메르세데스 me'와 서울 강남·고양·하남 등에 선보인 현대자동차의 '모터스튜디오' 등이 그 예다.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는 축구장 절반 크기로 커피 로스팅 과정을 모두 보여준다. 이들 공간은 단순한 제품 전시 또는 판매 공간을 넘어 문화 공간을 표방한다. 직접 레스토랑과 바, 카페를 운영하거나 브랜드 역사와 전통을 알릴으로써 고객이 브랜드 고유의 감성을 라이프스타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돕는다.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가장 대표적인 곳은 일본의 쓰타야다. 쓰타야의 지향점은 '고객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함으로써 고객을 진정 행복하게 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서점이지만 독서, 쇼핑, 문화, 휴식, 사교, 여행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요리책 옆에는 각종 식기와 식재료, 원예책 옆에는 씨앗과 화분 등의 원예도구가 진열돼 있다. 여행책 색션에는 여행 데스크가 있어 항공권과 기차 티켓까지 바로 예매할 수 있다.

영국 런던에서는 최근 도시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던 화력발전소 '배터시'를 재생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주거, 오피스, 호텔, 문화시설, 공원과 약 4만 평(13만2000㎡)의 리테일 공간이 탄생한다. 배터시는 임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1층의 상당 부분에 체험 콘텐츠, 즉 음악 홀과 주방, 컵 스튜디오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물의 매력을 유지하고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4 Collaboration 서로 다른 업종이 손잡다

공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업종과 손을 잡는 것이다. 불거리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쉽게 모이고, 사람들은 모이면 커피나 차를 마신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협업 파트너는 문화와 커피다. 그중에서도 책, 도서관의 활약이 단연 눈에 띈다.

스타필드 코엑스몰의 랜드마크로 주목 받은 '별마당 도서관'이 그 대표적이다. 이를 필두로 책을 들여놓은 상업 공간이 늘었다. 광화문의 KEB하나은행×북바이북 광화문점은 술을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 북바이북과 하나은행 컬처뱅크가 결합한 곳이다. 아난티 코



©DJ Quietstorm

3

브와 아난티 남해는 호텔도 호텔이지만 '이터널 저니'라는 도서관으로 더욱 유명하다. 키즈 플레이스와 더불어 무려 55가지 테마의 서가를 갖추고 저자와의 북토크, 인문학 수업, 심야 책방을 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명소로 떠올랐다. 이 밖에 몇몇 은행들이 운영하는 '카페 브랜드'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커피나 책을 들여 특화된 점포들은 만남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로 오프라인 점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Onlife 온라인 소비와 오프라인 매장이 만나

"온라인과 일상의 차이가 점점 희미해져 두 영역의 구분이 사라지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하나의 온라인 루치아노 플로리디는 '온라이프(Onlife)'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온라인 소비시장이 점차 거대해지면서 사람들은 오프라인 소비가 당장이라도 종말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손잡고 시너지를 내며 색다른 공간과 경험을 형성하는 O4O(Online for Offline) 개념이 시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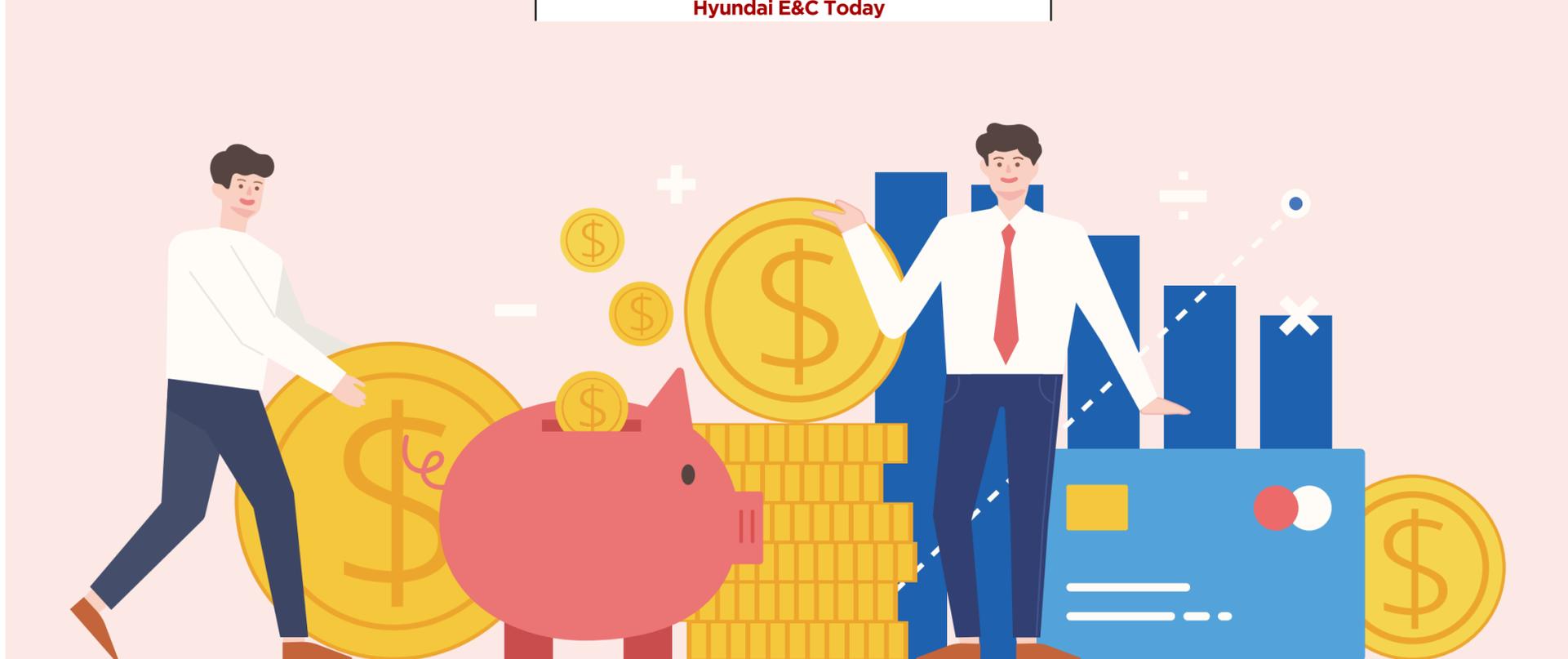
가장 화제를 모은 것이 바로 아마존 북스다. 시애틀의 대학교 지역에 2015년 처음 문을 연 이곳은 온라인에서의 리뷰나 예약 및 판매 상황을 기반으로 서적을 진열한다. 또 소비자들은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관련 상품을 체험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미국의 대형 마트 '타깃', 백화점 '노드스트롬', 중국 알리바바의 신선식품 매장 '허마셴셴' 등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제품을 주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한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4



5



“6개월에 1천만 원 모으는 비결이 궁금하세요?”

피플 인사이트 평범한 2040 청장년층에게 목돈 마련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다. 노후 대비는 커녕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부담인 현실에 EBS는 <호모이코노미쿠스>라는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고액 연봉자가 아닌 회사원, 아르바이트생, 주부 등 평범한 사람들을 모아 6개월간 1000만원 모으기에 도전한 것. 다소 불가능해 보였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1000만원 모으기에 성공한 참가자들의 비결을 <호모이코노미쿠스>의 멘토인 제테크 전문가 김 유라씨를 만나 물었다. 글=성소영 <채널에스> 기자 / 사진=출판사제공

1000만원 모으기가 왜 중요한가요?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돈이 없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입금되면 다 써버리는 소비 패턴이 굳어져 있죠. 하지만 돈을 한번이라도 모아본 사람은 돈 쌓이는 재미를 알아요. 1000만원을 가졌을 때의 기분을 느껴보았으니까요. 그럼 2000, 3000, 4000~ 이렇게 1억원까지 모을 수 있죠. 요즘 집값을 생각하면 1000만원이 턱없이 적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1000만원은 생각보다 모으기 어려운 돈이에요. 50만원씩 모으면 20개월이 걸리고, 100만원씩 모아도 10개월을 투자해야 하죠. 부자가 되는 기분을 느껴보고,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1000만원은 첫걸음인 셈이에요.

책 속 솔루션 중 특히 ‘통장 쪼개기’가 유용하게 느껴졌어요.
통장을 나누지 않고도 계획된 소비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통장 쪼개기가 필요합니다. 식비·교통비·의류비 등 세부 항목별로 사용할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내키는 대로 카드를 쓰니 무분별한 곳에 돈이 다 나가서 가장 중요한 곳에 사용할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저축을 깨게 되죠. 저는 목적별로 돈을 구분해 쓰는 걸 중요시해요. 국가도 부처마다 정해진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정에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나요? 무분별하게 돈을 쓰면 가정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 지출을 균일하게 만들면 저축도 균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난 체크카드를 쓰는데 왜 돈이 안 모이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매달 생활비를 정하고, 그걸 나누어 주급으로 자동이체 시켜 보길 권해요. 매주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다 보니 자연스레 절약하게 되거든요. 시



스템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단순히 ‘한 달 생활비 50만원’이라고 정해두면 일주일 만에 50만원을 다 써버릴 수도 있어요. 체크카드에 남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획된 소비를 하기 어려워지니까요.

통장을 몇 개로 나누면 좋을까요?
일단 ①월급 통장 하나가 있어야 해요. 이 통장은 돈을 배분하는 역할일 뿐이지, 여기서 돈을 쓸 순 없어요. 그 통장에서 ②생활비 통장으로 주급을 자동이체 시키고 ③관리비 통장을 만들어 보험료·아파트관리비·공과금 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관리비를 계산해 이체해 놔요. 이렇게 하면 관리비를 연체해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가산세가 올라가고 보험이 해지되는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④예비비 통장을 만들어요. 여기는 자동차세·자동차보험료·재산세·집안 경조사 금액 등 1년에 한번씩 들어가는 비용을 합산해 12로 나누어 저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료가 36만원이라면 한 달에 3만원씩, 양가 부모님 생신 축하금이 40여만 원 정도 든다면 나누기 쉽게 48만원을 책정해 한 달에 4만원씩 이체하는 거죠. 집집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니 각 항목을 정해보고 한 달에 모아야 할 돈을 계산해 매달 이체하면 연간 예비비가 마련돼요.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 통장에서만 돈을 빼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저축을 깨지 않고도 소비 할 수 있어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단 각 통장에 돈을 이체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은 절대 안 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해요.

소비는 어디서부터 줄이면 좋을까요?
우선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보험료·통신비·관리비 같은 것들이죠. 잘 찾아보면 통신비 같은 경우 온 가족 할인 요금이나 추가약정 제도 등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또 최신형 휴대전화를 구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휴대전화 할부이자가 굉장히 비싼 거 아니냐? 요금에 합산돼 나오기 때문에 따져보지 않게 되는데, 휴대전화를 살 때는 단말기를 현금으로 구입한 뒤 개통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일주일 이상 집을 비울 때 통신사에 전화해 인터넷 사용을 중지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료에서 그 기간만큼의 요금이 빠져요. 이런 식으로 10원이라도 돈이 새어 나가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건 보험료예요. 보험이 만일의 일을 대비하는 돈이라면, 저축은 긍정적인 일을 대비하는 돈이거든요. 내가 죽고 난 후, 혹은 아프고 난 뒤의 일에는 매달 몇십만 원씩 투자하면서 나의 평범한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건 위험한 일이지요. 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축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현재 보험료를 많이 지출하고 계신 분들은 꼭 리모델링을 받아 보시길 권해요.

사회 초년생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선 신용카드를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앞서 이야기했듯 주급으로 생활비를 나누어 쓰는 게 중요해요. 만약 일주일에 10만 원씩 쓰기로 책정했다면 그 돈을 전부 술 마시는 데 쓰는 호텔에서 밥값으로 쓰는 전혀 상관없어요. 사회 초년생이 기억해야 할 건 ‘어디에 썼냐’가 아니라 ‘얼마를 썼냐’예요. 사람들은 자잘한 걸 많이 쓰면서 알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1만원어치 군것질거리를 열 번 사면 10만원이죠. 오히려 호텔에서 한 번 비싼 밥을 먹고 나머지 일주일간 집에서 간장계란 밥을 먹는 게 더 멋진 삶일 수도 있어요. 알뜰한 것과 계획적인 소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아껴서 품 나게 쓰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열심히 저축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요. 저축 안 하고 신용카드로 여행 다녀온 뒤 내내 할부금을 갚아야 한다면 여행이 끝난 뒤의 일상은 불행이잖아요.

중저소득층을 모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절약을 하다 보면 슬럼프가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이를 이겨낼 노하우가 있을까요?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

으면 좋아요. 포털사이트마다 절약 카페가 많거든요. 그런 곳에 가입해서 정보도 나누고 위로와 응원을 받는다면 힘이 될 거예요.

1000만원 모으기에 성공한 이후에는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워런 버핏이 투자 원칙을 말했어. 첫째, 절대 잃지 않는다, 둘째, 절대 잃지 않는다, 세 번째, 절대 잃지 않는다. 1000만원을 절대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1000만원으로 눈에 띄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는 거의 없어요. 저는 스스로 투자 상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까지 이 저축 패턴을 좀 더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목돈이 생겼다고 선불리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꾸준한 저축으로 돈을 계속 늘려 나가면서 동시에 제테크 공부를 해야 하고요. 제테크에 대한 공부와 고민은 오래할수록 좋거든요.

1000만원 모으기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요. 다른 사람은 뭘 하지? 다른 사람은 뭘 먹지라며 다른 사람의 생활을 자꾸 보고 따라 하기 때문에 돈을 더 쓰게 돼요. 비교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살 수 있잖아요. 만약 내가 원하는 게 중저소득을 모아 부자가 되는 거라면 지금 해야 할 것들이 명확해 지거든요. 통장 잔고는 탄력이 없으면 계속 늘어나요. 한번 플러스 인생을 살면 계속 플러스가 되죠. 다른 사람을 관찰할 시간에 나를 들여다보고, 소비하는 순간의 행복보다 통장 잔고의 든든한 행복을 느껴 보셨으면 좋겠어요.

2019년의 계획으로 중저소득 마련을 결심한 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들려주세요.

기록의 힘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축하는 과정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기록으로 남기면 성취감이 크거든요. 소비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SNS 대신 절약 카페에 자주 들어가 나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해 보시길 권해요. 그곳에서는 ‘오늘 무지출했다’는 게 가장 큰 자랑이거든요(웃음). 돈을 안 썼다고 자랑했을 때 “왜 그렇게 공상맞게 사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를 가난하게 만들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 듣지 말고 꾸준히 저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축을 먼저 한 뒤 지출을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제테크 전문가 김유라는

『6개월에 천만원 모으기』의 공동저자로 복부인, 부동산-재테크의 여왕 등 다양한 수식어가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2013년 네이버 팬들이카페에서 슈퍼팬선발대회 대상을 수상하였고, 공동저서 『돈이 모이는 생활의 법칙』, 저서 『나는 마트대신 부동산에 간다』, 『아들 셋 딸의 돈되는 독서』 등을 집필했다.

증강현실로 바뀔 대중문화 그리고 현실

문화칼럼 최근 유명한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은 '증강현실'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소재로 사용했다. 드라마 속 현실과 증착된 가상의 이미지들은 마법 같은 새로운 공간으로 대중들을 빠져들게 했다. 과연 증강현실 기술은 대중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글=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

'포켓몬고'가 선보인 증강현실의 세계

최근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하 알함브라)에서 증강현실 게임을 소재로 삼은 건 이미 '포켓몬고'라는 게임 열풍이 있었기 때문이다. 증강현실은 포켓몬고를 통해 대중들에게 조금은 익숙해진 기술이 되었다.

증강현실은 현실에 가상이미지를 덧붙여 훨씬 '증강'된 신세계를 보여주는 기술로 설명만으로는 모호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된다.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현실 속에 포켓몬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을 때 우리는 길거리에서 특이한 풍경들을 마주하게 됐다. 특정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서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포켓몬을 잡는 것이다. GPS 기반으로 특정 위치에 직접 가야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게임의 특성 때문에 게임 유저들은 길거리로 나오게 됐고 포켓몬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나, 게임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볼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포켓스탑'에는 때아닌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2016년 시작해 2017년 최고조에 올랐던 포켓몬고의 전 세계적 열풍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포켓몬고 때문에 속초가 유저들의 성지가 되어 때 아닌 관광객들을 누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증강현실 기술이 알려지지 했지만 게임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변이 만들어졌다고 보긴 어려웠다. 하지만 <알함브라>는 드라마라는 장르적 특성으로 이 기술이 이제 현실 가까이 들어왔다는 걸 일반 대중에게도 알려주었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증강현실이라는 새로운 시각 체험

<알함브라>는 시작부터 주인공 유진우(현빈)가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증강현실 기반의 게임에 접속해 레벨을 올려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스마트폰의 화면을 대신하는 렌즈를 낀 유진우가 이 증강현실 기반의 게임에 접속하자 그라나다의 어느 광장에 석상으로 세워진 전사가 깨어나 그를 공격해 온다. 공간은 현실이지만 그 위에 떠 있는 게임 속 가상의 전사를 죽이기 위해 유진우는 밤새도록 게임에 빠져든다. 게임의 맵이 지정하는 카페 화장실에서 녹슨 검을 아이템으로 얻고 그걸로 대결을 거듭한 끝에 간신히 전사를 죽이자 레벨 업이 된다. 이 시퀀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RPG 게임을 시작할 때 하게 되는 튜토리얼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결국 <알함브라>는 증강현실 기반의 게임이 오류로 인해 현실과 중첩되면서 판타지적 상황으로 전개된다. 게임속에서 죽은 인물이 실제로 사망하고, 그 인물이 게임 속 캐릭터로 되살아나 마치 좀비처럼 계속 주인공을 공격해 온다. 물론 이 부분은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해 넣은 판타지적 허구지만 증강현실 기반의 세계가 만들어내는 현실



1,4,5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속 한 장면. (CJ E&M 제공) 2,3,6,7 게임 '포켓몬고'. (나이엔틱 제공)

과 가상의 중첩이 얼마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맞닿아 있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그 세계에 빠져드는 이들의 환상이 어찌하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어 낼 수도 있다는 걸 새로운 시각 체험을 통해 그려낸다. 포켓몬고가 증강현실의 신기한 세계를 소개했다면, <알함브라>는 그 세계가 우리의 현실 인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가를 담았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증, 게임에서 실마리 찾다

포켓몬고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의 저변을 만드는 데 게임만큼 효과적인 장르는 없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이 만들 미래 세계를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을 한 편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기술을 알리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그 새로운 세계의 신묘함과 매력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증은 대중문화 역시 늘 갖고 있는 욕구다. 그래서 대중문화는 SF나 판타지 장르 등 대중이 접하지 못한 신세계를 열어 보려는 일련의 시도들을 해왔다. 그 중 하나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건 게임이다. MBC 예능 프로그램 <두니아>는 실제 게임인 <야생의 땅 듀랑고>의 세계를 가져와 방송화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실 혹은 스튜디오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두니아라는 가상의 공간을 새롭게 창출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갑자기 두니아라는 낯선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 인물들이 공룡이 다니는 세상에서 생존하는 과정을 예능 프로그램으로 담았다. 또 최근 방영된 영화 <PMC : 더 벙커>는 DMZ 지하에 존재한다는 벙커에서 미션을 수행하던 중 갇히게 된 용병들이 그곳을 탈출하는 과정을 1인칭 슈팅게임처럼 연출했다. 물론 게임의 세계로 들어가는 설정은 아니지만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 세계가 1인칭 슈팅게임의 공간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다.

<알함브라> 역시 대중문화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증을 게임

이라는 공간에서 찾아낸 결과였다. 그간 <나인>이나 <인현왕후의 남자>로 타임슬립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고, <W>로 웹툰과 현실을 넘나드는 세계를 그려낸 송재정 작가가 <알함브라>로 증강현실 기반의 게임 세계를 가져온 것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최근 대중문화 속으로 게임의 세계가 자주 등장하는 걸 보면 이제 게임 공간은 현대적인 판타지 공간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임의 세계는 현대와 중세, 심지어는 미래를 넘나들 수 있고, 뭐든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여기에 증강현실이라는 개념이 더해지면 현재의 공간과 중첩되는 어떠한 시공간도 가능해진다.

게임 그 이상의 의미, 현실 개념이 달라진다

과연 증강현실 기술이 대중문화 속에서 보여주는 건 단지 게임 같은 신기한 세계일 뿐일까. 그렇지 않다. 그것은 현실과 겹쳐진 세계라는 점에서 그려낸 판타지 공간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즉 이제 우리의 현실 개념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포켓몬고로 돌아가보면 그 증거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포켓몬고가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미건조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집합처럼 되어 있는 현실 공간을 즐거운 발견이 가능한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실제로 그 공간에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증강현실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화 체험을 했다.

많은 기술이 대중문화의 오락적 성격을 거쳐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겪듯 증강현실도 조금씩 일상화 단계를 거치지 않을까. 이를테면 증강현실이 적용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하나를 끼는 것으로 거리에서 길을 찾거나 가고 싶은 음식점을 찾는 풍경은 그다지 먼 미래의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때가 되면 현실 개념은 달라질 게다. <알함브라>의 유진우가 경험했던, 실제와 가상의 정보가 겹쳐진 증강된 현실로.



생각의 좌표 미국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프랭클린이 말하는 참된 행복관.

벤저민 프랭클린의 성공 이야기

벤저민 프랭클린(1706~1790)은 미국 달러 지폐 가운데 가장 고액권인 100달러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는 많은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식민지 시절 양초와 비누 제조업을 하는 가난한 보스턴 가정에서 17명의 자녀 중 15번째로 태어난 프랭클린은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아버지 가게와 형님 가게에서 견습공으로 일하다가 17세에 무작정 가출한 후 이듬해 런던에 가서 인쇄일 등을 했다. 귀국 후에는 '펜실베이니아 가제트' 지(紙)를 맡아 수완을 발휘했다. 이어 사업가이자 과학자, 정치가, 외교관, 문필가 등 다방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84세까지 장수(長壽)했다. '휴수지'란 한계를 깨고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의 상징이 된 것이다.

프랭클린은 미국 최초의 공공 도서관을 세웠고 나중에 펜실베이니아대학으로 발전한 대학 창설에도 깊이 관여했다. 미국 독립선언문 기초 위원 같은 공인으로 바뻐지만 지진(地震)에 관한 연구 논문(1737) 발표를 시작으로 프랭클린 스토프(1742), 피뢰침(1749)을 발명했다. 연을 이용한 번개 실험(1752)도 했다.

매일 행했던 13개의 덕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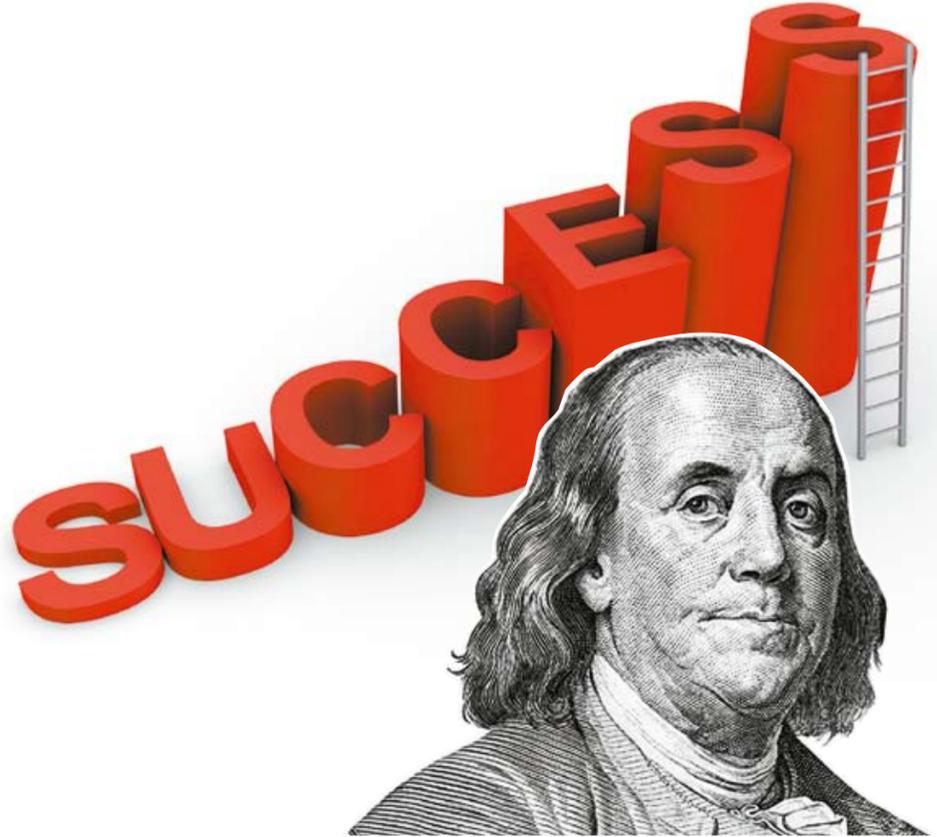
궁금한 것은 그의 인생을 비범으로 이끈 반전의 '계기'가 뭐가 하는 점이다. 79세에 프랭클린이 직접 쓴 자서전에서 그는 20~21세에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단단히 몸에 지니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절제·과묵·정돈·결단·절약·근면·성실·청결·정의·평정·중용·순결·겸손 등 13개 덕목(德目)을 정했

다. 공책에 빨간 선을 그어 가로 7칸에는 매주 7일을, 세로에는 13개 덕목을 각각 적어놓고 매일 저녁 그날의 실천 여부를 검사해 잘못된 점을 기록했다.

덕목마다 신경 써 지켜야 할 계율도 적었다. 절제(temperance)의 경우 '머리가 멍청해질 만큼 먹지 말고, 마음이 들뜰만큼 술을 마시지 말 것', 순결(chastity)에선 '성(性) 행위는 오로지 건강이나 자손을 위해 행할 것, 자타의 편안이나 신용을 손상하게 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프랭클린은 "일주일마다 하나의 덕(예: 겸손)을 실천해 13주일 만에 13개의 덕을 모두 익혔다. 그러기를 1년(약 52주)에 네 번 반복했다"고 밝혔다. 또 직접 작성한 '신앙개조와 종교적 행위'라는 제목의 예배 문구 기도서와 솔로몬의 '잠언', 톰슨의 시(詩)에서 인용한 기도문 등을 날마다 암송하며 기도했다. 하루 24시간도 철저히 관리해 허튼 시간을 극소화했다. 밤 10시에 취침해 오전 5시에 일어나는 생활도 평생 실천했다. 기상 직후에는 씻고 기도한 후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짐하고, 저녁에는 공부 외에 음악과 대화로 휴식을 취하며 그날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12명 안팎으로 구성된 공부 모임도 수십 년간 진행하며 지적(知的) 능력과 화술, 사교술 등을 연마했다. 자서전에서 프랭클린은 이렇게 적었다. "21세이던 1727년 상호 향상을 위한 클럽을 만들고 이름을 'JUNTO'라고 불렀다. 매주 금요일 밤에 모였는데 회원들은 차례로 도덕이나 정치 또는 물리에 대해 토의할 만한 주제를 제출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에 관한 자작 논문을 작성해 읽도록 했다."



프랭클린이 말하는 참된 행복이란?

프랭클린이 부자이면서도 검소했고 종교적으로도 경건했던 것은 평생에 걸쳐 이런 '덕'을 쌓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프랭클린을 말할 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행복관이다. "참된 행복은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 얻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그는 "정당하게 벌어서, 지혜롭게 쓰고, 기쁘게 나누며, 만족스럽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고 했다. 피뢰침을 비롯한 많은 발명을 하고도 그가 한 번도 특허 출원을 않은 이유는 그 목적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발명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다.

프랭클린의 삶은 2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태어난 가정이나 정규 교육이 미흡해도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간이 없다, 없다' 해도 잘 쪼개고 활용하면 탁월한 직장인이 됨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꿈과 희망을 가꾸며 고결한 삶을 꿈꾸는 이에게 벤저민 프랭클린은 영원히 살아 있는 스승이다.

송의달
〈조선일보〉오피니언 에디터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 책갈피

사우들의 새로운 시작을 도울 다섯 권의 책을 소개한다.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매일 읽겠습니다

저자 황보름
출판사 어떤책
출간 2017.11

금연, 영어 공부와 더불어 가장 많이 하는 새해 다짐, 책 읽기! 『매일 읽겠습니다』에는 1년간 매주 책을 읽을 수 있는 53가지 방법과 자신만의 독서 감상을 적을 수 있는 위클리플래너가 수록돼 있다. 아침에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책에 대한 생각만 한다는 저자의 독서 습관을 좇다 보면 올 연말 다독(多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황상민의 성격상담소

저자 황상민
출판사 심심
출간 2017.11

황상민 심리학 교수는 한국인의 성격을 다각도로 분석해 성격 유형 분석을 'WPI(Whang's Personality Inventory)'를 개발했다. WPI에 따르면 한국인은 리얼리스트·로맨티스트·휴머니스트·아이디얼리스트·에이전트로 나뉜다. 책은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상담 사례를 엄선해 엮었다. 신년에 더 나은 내가 되길 원한다면 읽어보라.



15도

저자 김하나
출판사 청림출판
출간 2017.12

반복되는 일상이 무료하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15도쯤 빼딱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 브랜드라이터인 저자 김하나의 책을 통해 '관점을 달리해 보지 못했던 것을 포착하는 힘'에 대해 말한다. 책의 리드에 따라 한 페이지씩 여백을 채우다 보면 어느새 새 조금은 특별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Merry People

저자 드로잉메리
출판사 휴머니스트
출간 201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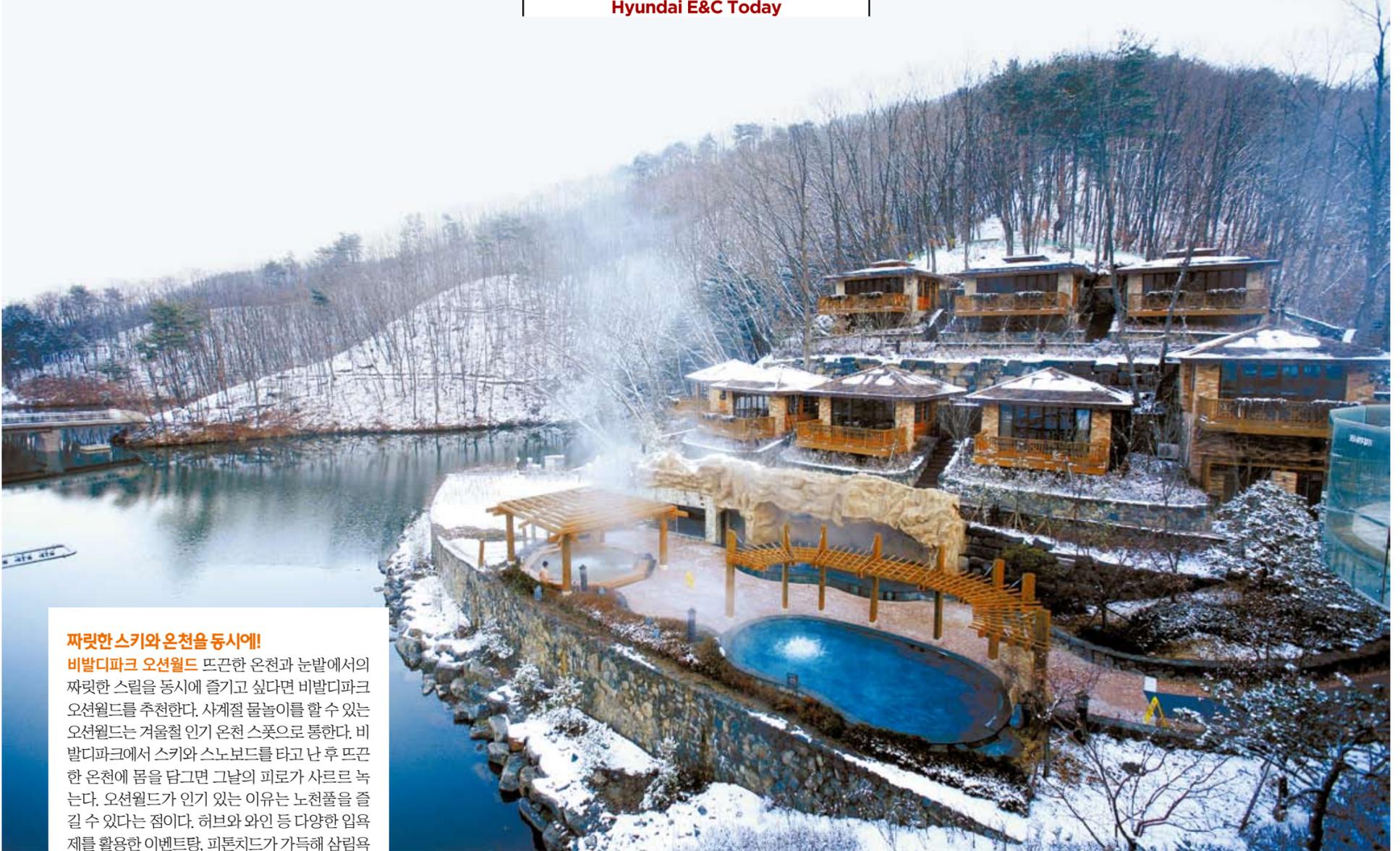
새해에는 취미를 하나 만들어보자. 책은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드로잉메리의 노하우가 담긴 컬러링북으로, 아크릴물감 초보를 위한 기초 지식과 컬러링 방법, 작가의 스케치가 인쇄돼 있다. '스페셜 세트'를 구입하면 작가가 사용하는 아크릴물감, 종이 팔레트 등도 사용해볼 수 있다. 드로잉메리의 채색 영상은 유튜브 '자기만의 방'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명치나 맞지 않으면 다행이지

저자 이지원
출판사 민음사
출간 2016.07

자신을 '뉴타운 월세 아파트 주민이자 두 아이의 아빠, 그리고 ('개저씨'가 되기 싫은) 아저씨 입문자'로 소개하는 이 지원씨의 산문집이다. 책은 가벼우면서도 날이 서 있다. 피식 웃음이 나기도, 미간이 찌푸러지기도 한다. 죽어도 끈대는 되기 싫은데 하루에도 열댓 번씩 분노가 솟구치는 사람이라면 읽어봐도 좋겠다.



짜릿한 스키와 온천을 동시에!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뜨끈한 온천과 눈밭에서의 짜릿한 스릴을 동시에 즐기고 싶다면 비발디파크 오션월드를 추천한다. 사계절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오션월드는 겨울철 인기 온천 스폿으로 통한다. 비발디파크에서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고 난 후 뜨끈한 온천에 몸을 담그면 그날의 피로가 사르르 녹는다. 오션월드가 인기 있는 이유는 노천풀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허브와 와인 등 다양한 입욕제를 활용한 이벤트탕, 피톤치드가 가득해 삼림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히노키탕 등 그 종류가 다양해서 고르는 재미까지 있다. 독립된 공간에서 숙박과 온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스파빌리지도 있어 가족 여행지로도 손색없다.

주소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전화번호 1588-4888
운영기간 연중무휴

설 연휴에 가기 좋은 가족 여행지

여행칼럼 요즘은 명절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 이번 설 연휴에는 가족과 차례를 지낸 후 가벼운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여행지를 알아보자. 글=황선영 / 사진=해당 여행지 제공



라바와 함께 타는 신나는 눈썰매!

서울랜드 라바 눈썰매장 서울랜드가 인기캐릭터 '라바'를 소재로 한 눈썰매장을 오픈했다. 라바는 레드와 옐로 애벌레 두 마리가 펼치는 슬랩스틱 코미디 애니메이션으로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랜드 눈썰매장은 입구부터 슬로프 정상에 이르기까지 라바로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눈썰매를 타는 동안 곳곳에서 라바를 발견하는 즐거움도 누리고 소복히 쌓인 눈을 배경으로 라바와 함께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보자. 연령에 맞게 슬로프를 선택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이용객이 함께 즐기기에 적합하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181 서울랜드
전화번호 02-509-6000
운영기간 2019년 2월 24일까지



조선야생버라이어티 체험하고 싶다면?

한국민속촌 한국민속촌에서는 '설원의 사냥꾼' 축제가 열리고 있다. 조선시대 옛 선조의 겨울 수렵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주목할 것은 '매 사냥'이다. 매 사냥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한국민속촌에서는 무형문화재 박용순 응사의 매 사냥 특별시연을 볼 수 있다. 또한 매 다리에 줄을 달아 먹이를 주는 '매 사냥 기초 훈련' 체험, 매의 식별을 위해 공지에 표식을 하는 시치미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빙판 위 썰매타기, 연날리기, 장작 패기 등 겨울 전통놀이를 즐기고 옛 선조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한국민속촌
전화번호 031-288-0000
운영기간 2019년 3월 24일까지

겨울철 손맛 '얼음낚시'를 즐기!

양주 송어축제 낚시의 매력은 기다림 끝에 느끼는 손맛이다. 두꺼운 얼음 위에 구멍을 뚫고 물고기를 낚는 '얼음낚시'는 초보자도 쉽게 손맛을 볼 수 있다. 양주시 연곡저수지에서 열리는 '송어축제'에서는 송어를 잡으면 즉석에서 송어회로 먹을 수 있다. 낚시 외에도 송어 맨손잡기, 송어 뜰채 잡기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전통 얼음썰매타기, 빙어 뜰채 잡기 등 어린이를 위한 행사도 준비돼 있다. 개장 시간이 오전 8시로, 일찍 시작할수록 송어를 많이 잡을 수 있음을 참고하자.

주소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연곡로 182번길 100
전화번호 1588-9260
운영기간 2019년 2월 17일까지

